

‘민·군 공항 통합이전’ 꼬인 실타래 풀릴까

姜시장, ‘함흥차사’·‘양심불량’ 전남도·무안군에 사과 김지사 “시장 국감 발언 진정성 있게 여겨져” 사과 수용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강경 발언에 대해 제차 공식 사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꼬일대로 꼬인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한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 시장은 24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안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라고 전남도와 무안군에 사과했다. ‘공식 사과인가’라는 질문에 강 시장은 “(지난 22일) 광주시 국감장에서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이라며 “오늘 얘기는 무안군민 또 전남도의 노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노력이 폄하했다는 분명한 의견도 있고 사과 요

구도 있어 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고, 전남도와 합심해 무안으로 통합 이전에 합의했다”며 “약 3만 명의 무안군민과도 직접 소통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이전 후보지 결정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강 시장은 “알 속의 당사자”인 광주·전남·무안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며 “알 바깥의 당사자인 정부나 국방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제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민주당이 ‘줄탁동시’ 해줘야 한다”고 정부와 정당에 관심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정부는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재개해 주시길 바란다. 무안국제공항 건설,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 KTX 무안 공항 경유 등 역대 정부의 성과를 있는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을 통해 서남권 발전의 비전을 완성해 달라”며 “민주당은 세 지자체(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의 단체장이 모두 속한 정당이다. 특위를 구성해 당사자가 풀기 힘든 매듭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

난 자리에서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국감장사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러 말들을 반추하다보면 감정이 쌓일 수 있다”며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이 상생협력 할 큰 과제인 만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안군민의 수용성’이고, 군민을 대변할 사람은 (무안)군수”라며 “어떻게든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 이전을 예로

들며 대도시 단체장과 정부 부처(국방부)의 역할론과 ‘마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언급된 ‘전남도 중재자론’에 대해 김 지사는 “군공항은 ‘환영받지 못한 시설’이라고들 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1차적인 당사자라는 의미이고, 전남도가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시장, 도지사, 군수 3자 회동이 정 어렵다면 광주 부시장과 무안군, 전남도에서도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3자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한국코드페어’ 본선 광주서 열린다

오늘부터 광주과기원·DJ센터...SW공모전·해커톤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컴퓨터 프로그램 경진대회인 ‘한국코드페어’ 본선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 역량 함양을 위한 ‘제2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를 25일과 26일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대상, 우리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작품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공모전’과 제시된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해커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부방’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공모전’은 지난 8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중·고등학교 각 30팀씩 총 90팀이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본선을 치른다. 본선에 오른 90팀은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발표하고, 초·중·고등부 각 10팀씩 최종 30팀을 뽑는다. ‘해커톤’은 예선을 거쳐 30팀(중·고등학교 각 15팀)이 본선에 올라 26일 공개되는 주제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해결책을 제시한다. 30팀 중 12팀(중·고등부 각 6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소프트웨어공부방’은 한국코드페어 누리집(www.kcf.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연계한 사제행사인 ‘광주 AI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본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5일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의 슈퍼컴퓨팅센터 견학과 AI+드론, AI 자율주행·작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 유튜버 ‘레도’의 강연도 마련된다. ‘레도’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 어디까지 왔을까?’ 주제로 25일 오후 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토크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사전 신청(https://vvdzbz/f0j)을 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선경기자



광주시의회 비엔날레 관람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등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24일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해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관람은 관계자 격려와 광주비엔날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광주시의회 제공>

김지사, 31일까지 미국·오스트리아 순방

전남정원 준공식·세계한인경제인대회 주제강연 등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전남의 에너지 정책과 농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5박8일 일정으로 미국·오스트리아 순방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순방 첫날 25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미동맹의 진전과 글로벌 전남의 도약’이라는 주제 연설을 통해 전남을 소개하고 뉴욕한국문화원에 조성된 전남도 정원 준공식에도 참석해 전남 정원의 진수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28일에는 북미 최대 한인마트인 H-마

트 온라인몰에 지자체 최초 전남도 식품관 개설을 축하하는 기념식에 참석해 전남 농수산물 판촉 활동에도 나선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마들스쿨에서 열리는 ‘한복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어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28일 비엔나 센타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전남 도정 성과와 미래산업비전’에 대한 주제강연을 한다. 29일 2024 KOR-AUT 에너지위크, 전남·경북 상생협력 공동관 개관식, 제

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식에 잇따라 참석해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전남을 알리고, 경북과 함께 지역 상생협력의 새 지평을 열 계획이다. 30일엔 농수산물품의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 내 아시아 식품 유통 1위 기업인 판아시아(PanAsia)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순방은 전남의 매력과 비전,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킬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맛과 멋, 혁신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협력과 투자유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1면 ‘한국시리즈’서 계속 타자 친화적 주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홈으로 쓰는 삼성은 이번 시즌 리그 홈런 1위를 기록했다. KIA로서는 한방을 조심해야 한다. 삼성은 구자욱(33), 김영용(28), 박병호(23), 이성규(22) 등 20홈런 타자가 4명이 포진돼 있고, 강민호(19)와 이재현(14)까지 포함해 두 자릿수 홈런 수를 기록한 타자가 6명이나 된다. 2차전에서 5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

두른 디아즈와 3타수 3안타를 때린 류지혁도 경계 대상이다. 이에 맞서 KIA도 리그 최강의 핵타선이 삼성의 마운드를 다시 한번 두들길 계획이다. ‘작은 거인’ 김선빈은 앞서 2경기에서 6할대의 화력을 선보이며 이번 한국시리즈의 주역으로 떠올랐고, 2차전에서 가을야구 첫 홈런을 작렬한 김도영의 방망이도 더욱 달아올라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중심타선 최형우와 나성범, 소크라테스도 예열을 마치고

언제든지 홈런포가 준비돼 있다. 불펜에서는 장현식, 전상현, 곽도규 등이 삼성의 예봉을 꺾어 팀의 허리를 든든히 지지고, 팀 승리를 완성할 정해영도 뒷문 단속을 나선다. 강력한 타선과 안정적인 마운드를 바탕으로 삼성을 압도하고 있는 KIA는 남은 경기에서도 이미 승리를 거둔 준비가 돼있다. 호랑이 군단이 사자 군단을 제압하고, 적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팬들의 기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투자금 8억 월세순수익 650만원 연금융부동산
대지3,467㎡ (원룸60실,상가2,아파트형 주택1세대)
조망좋은 주인세대135㎡(방4욕실2)매수자바로입주됩니다
2023.6월 물수리 손볼금 없습니다
총매가 13억7,000(현재월세 보1,500월1,220만원,용자6억포함)

영산강변 관광위락지역 4차선도로변 코너 자연녹지 18,500㎡
급급매 36억(은행융자23억포함)머지타운,타운하우스,위락관광타운,요양원 등 다용도 활용가능 매력 넘치는땅입니다.

수익용빌딩 감정가55억 급처분가 52억
현금12억4,000인수가능
(현재100%임대 보4억6,000월2,772,용자35억포함)
계림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560㎡ 6층연1,750㎡ 병원,학원등 임차 업종 땡땡합니다//월수익용 최고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